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식지  
2021년 창간호



# 포평생 In

제주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평생교육의 장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았으니



영락 학당

이 영순

눈뜬 봉사였던 내가  
영락학당 에서 글을 배웠으니  
먹고 살기 힘들어 나를 학교 못보내  
가슴앓이 하시던 엄마 무덤에  
이시를 바칩니다.

엄마 이제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았으니  
눈부신 봄라늘을 마음껏 날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어도  
이젠 지루하지 않아요.  
책도 읽고 손녀에게 편지도 쓰며  
즐거운 나날을 보낸답니다  
그러니 엄마 속상해 마시고 그곳에서 편리 쉬세요.



2020년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상」

# 목차



1. 발간사	04
2. 진흥원 이야기	05
3. 쉬어가는 코너	09
4. 배움 ON, 삶을 빛습니다	10
5. 현장 인물 조명	16
6. 이 정보, 혹시 깜박하셨나요!	18
7. 주요안내	20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Jiles)이 설립된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보육의 시대를 건너서 교육의 시대로 들어설 시간입니다. 이러한 때에 Jiles가 웹진을 발간하게 됨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를 가능해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말해주는 Jiles는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의 두 기둥을 축으로 해서 ‘성숙한 평생학습사회 제주’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공익기관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Jiles의 구성원들은 평생교육 전문가이자 인재육성 책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두 날개를 활짝 펴서 비상해야 할 때’라는 다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관으로서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기에 적합한 장이 ‘웹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온 발자취가 ‘함께한 순간’에 모여지고, 그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배움을 함께했던 도민들의 삶이 ‘배움 ON’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와 행사 안내 등도 Jiles의 현주소를 알려주고 앞으로의 방향을 시사하는 점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 본 솜씨이니 앞으로 점점 나아지리란 기대로 벌써 다음 회를 그려봅니다. 저희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배움터에서 혼디모영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삶의 역량을 키워주신 고객 여러분이 계셔서 가능한 꿈입니다. 더 많은 도민들께서 Jiles를 통해 배움의 생활, 행복한

인생을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제주도민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더 공부하겠습니다. 또한 고난의 시절에도 지역의 인재를 키워 희망의 시대를 열어 온 제주도민의 꿈을 연결하는 디딤돌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Jiles의 초청으로 올해 제주포럼에 오신 김형석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인생길을 100리 길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생활은 10리, 중학교는 20리, 고등학교는 30리 길이다.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이 다가는 길 이므로 기차를 타는 것과 같다. 대학교에 가면 40리 길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뒤, 60~70리 길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나를 키워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자신을 키워가는 사람만이 100리 길을 살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100년을 살아오신 교수님의 평생학습론은, 인생길을 완주하기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19가 2년째 지속되다 보니, ‘전 생애 동안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평생교육의 가치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실, 교육이란 나를 키우는게 목적이므로 학교공부도 중요하지만, 정작은 내가 하는 공부, 내 삶의 나무를 나답게 키워주는 교문 밖 배움이 더 교육적이란 공감대가 커진 연유인 듯합니다.

모쪼록 이 웹진을 통해 ‘제주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평생교육의 장’이 더 활발해지고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 경영지원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등 살림꾼



제주인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탄탄한 골격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영지원부는 진흥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업무와 직원들의 복리후생, 역량강화를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다.

### 사람을 키운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경영지원부에서는 진흥원 식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각종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조직 개발 워크숍, 리더십 교육 등 총 5회의 교육을 진행하여 누적 97명의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 활기차게 일하다

우선 매주 주간 및 월간회의를 통해 각 부서 및 직원의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매년 상·하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진흥원의 성과를 점검 한다. 2개월에 1번 직원 '소통데이' 운영을 통해 직원들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진흥원 임직원들로 구성된 'JILES 행복배움봉사단'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 공헌활동 확대 및 나눔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 틀을 만든다

진흥원 운영에 기본이 되는 각종 제 규정을 만들고, 진흥원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2회 개최하였고,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다.

## 전략사업부

제주의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 제주 4.3 평화의 바람이 미얀마에 닿기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73주년 제주 4·3을 맞이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 제주의 맞춤형 인재육성과 평등한 교육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

제주의 맞춤형 인재육성과 평등한 교육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국가산업대상’ 인재육성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평생교육 세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일차인 6월 25일 평생교육 세션을 운영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천하는 글로벌 시민성 리더러시(literacy)’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션에서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 활동 방안이 논의됐다.

## 평생교육부

제주인의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공동체 구현을 지원하는



### 도민의 기초생활역량 함양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2021년 2월 10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로 지정 및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공모해 9,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주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우리동네 역사·문화 이야기 만들기」, 즈녀(해녀)의 삶을 이야기하는 「제주해녀 꿈바당학교」 등 제주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 제주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도민 평생학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도민 평생학교를 운영중이다. 고유한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 이해 과정을 통해 제주사회를 이해하는 「제주 사회의 이해」, 「제주 신화 학교」, 「제주학 인물사 강좌」와 4차산업혁명 및 미래 핵심 기술 분야 이해를 위한 「미래 사회의 이해」 특별 강좌를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학습동아리 활동하며 함께 배우고, 나뉘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내 학습 공동체 활성화 및 학습동아리의 성장을 위해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정기적 모임이 있는 도내 학습동아리(23개)를 대상으로 강사료와 교재비 및 재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 인재육성부

제주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글로벌 인재육성



2021년도 「제주인재육성 장학금」은 지난 2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제주 출신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및 개별적으로 접수를 진행하였다. 더구나 이번 해에 총 668명이 지원하였고 최종 225명을 선발 하였다. 장학금 종류로는 ① 성적 우수자에 대한 성취장학금(167명), ② 어려운 학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장학금(21명), ③ 학업 장려를 위한 읍·면 고등학교 출신 대학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특별장학금(10명), ④ 다양한 재능으로 대회에 참여한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재능장학금(27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였다.

더불어 올 해부터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20여년 간의 장학사업 홍보와 함께 장학생들의 지역 사회 참여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운영에 따른 「제주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상담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들의 꿈 자람터



## 독서진흥사업

‘꿈바당갤러리’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문화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꿈바당어린이독서회’, ‘꿈바당학부모독서회’의 독서 동아리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정원을 모티브로 한 ‘꿈바당 책 둘레길’은 제주도내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제주 어린이의 꿈 자람을 지원하고 있다. 책 읽기와 글쓰기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독서 영상공모전’과 ‘제주어린이작가글짓기대회’는 올해 제 2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많은 가족이 참여를 하고 있다.

## 평생교육사업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유와 질문과 지혜를 장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으로는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제주문화 프로그램’, ‘자연체험 프로그램’, ‘소규모 독서모임 프로그램’, ‘가족소통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프로그램’ 운영은 제주도내 작은 도서관 30개소, 동네책방 3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탐나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 탐나는 5060인생학교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 장년층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한 생애재설계 교육 참여로 적극적인 인생 후반기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올해 5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2021년 봄 학기 탐나는 5060인생학교 8기’를 운영하였으며, 총 24명의 수강생이 수료하였다.

## 5060재능나눔지원단

SK 대학생 봉사단 SUNNY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2021년도 인생선배의 비밀 상담소’를 시작으로 ‘교육·상담, 문화·예술, 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올해 4월부터 64명의 활동가들이 도내 공공·민관기관 등에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공동체 씨앗동아리 활성화

장년층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으로 올해는 ‘사회공헌, 문화예술, 창업·창직’ 등 다양한 분야의 8개 동아리를 선발, 동아리 활동비, 기초소양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씨앗동아리의 성장을 지원한다.

##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육성

‘제주 공동체 문화활동가 양성 교육과정’ 수료를 마친 18명의 활동가들이 도내 어린이집, 도서관, 사회복지 기관 등에 파견되어 제주 전통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올해 18명의 활동가들이 활동 중에 있다. 신규 문화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입문기초 교육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나의 비전과 꿈을 찾는 열린 학습 공간  
나·비·꿈 이야기

## 중국어 체험학습관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외국어 평생학습 공간

## 제주 도민외국어 교육사업

외국어 학습을 지원 합니다!



### 나·비·꿈 시작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문제를 자기주도학습으로 해소하고, 지역 사회 많은 교육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것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교육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배움의 즐거움, 스스로 학습의 성취감, 자기관리의 계획성 등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 영역 1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나·비·꿈 펼침!

코로나 19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기주도학습센터 교육은 센터·찾아가는 교육(마중물배움터·지역기관 등)과 대면·비대면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1월~6월 상반기 교육 운영 결과 185개 프로그램 3,260명이 참여하였고, 학습자의 교육 만족도는 94.36%로 높게 나타났다.

### 중국어체험학습관은

도민 누구나 외국어를 접하고 배우는 열린 외국어 학습 공간으로 2014년 3월 27일 제주도 중국어체험학습관 개관에 이어, 2015년 2월 26일 서귀포시 중국어 체험 학습관을 개관하여 총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기존 외국어학습관과 차별화된 학습모델을 제시하고, 주제·분야·직업군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문화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외국어 교육」,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올해에도 총 108개 프로그램 총 710명 참여하고 있다.

### 아카데미

도민 1인당 연 2회 외국어 학습비 70%(최대 지원범위 내)를 지원한다. ‘제주 평생교육다모아’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5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학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단, 학습자로 선정되더라도 출석률 70%이상인 경우에만 학습비 지원이 가능하다.

### 찾아가는 배움터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외국어 학습 동아리 10팀에게 강사 파견 및 강사료를 지원한다. 영어 2팀, 중국어 2팀, 일본어 2팀, 베트남어 1팀, 러시아어 1팀, 한국어 2팀에게 지원하며, 한국어의 경우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로 이루어진 동아리만 신청이 가능하다.

### 직종별 특화 외국어 강좌

5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 단계별 제한 없이 현장에 적합한 실무 회화 과정으로 외국어 사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프랑스 작가 '아나톨 프랑스'는  
'여행'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 주는 것이다.



여행은 좋은 곳을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곳에서 더 넓은 시야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시대를 맞아 우리는 일상의 자유를 빼앗겼고, 그동안 여행을 통해서  
얻었던 수많은 기회와 영감과 감정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민철 작가는 이런 현실에 주목합니다. 삶에서 벗어나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던 여행이 그림고 간절한 우리들에게 속삭이듯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는 '여행에세이'이자, 여행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이자,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인 셈입니다.

아직 '여행'이 그리운 우리들,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 그때까지 서로가  
서로의 여행지가 되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 꿈과 용기를 심어준

류선우 물메초등학교 6학년

2021년 제주 인재육성 재능 장학생

2021년 봄, 꽃망울을 질투하는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저에게는 나쁜 소식 한가지와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나쁜 소식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지난해 겨울부터 이유없이 아팠습니다. 몸무게가 줄고, 이유없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병명을 알게 되었고, 희귀난치병이라고 의사선생님 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래에 대한 꿈나무를 열심히 키우던 저에게 거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도 따뜻한 햇빛이 있어 봄의 꽃을 활짝 피게 하는 것처럼 저는 '제주인재육성장학금'을 받는 좋은 소식을 안게 되었습니다. 사실 희귀난치병이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제 꿈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야금연주자가 되고 싶은 어렸을 때의 꿈을 병 때문에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연주자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 가야금만 열심히 연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도 열심히 읽었고, 글도 열심히 썼습니다. 악기를 연주한다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제 노력을 인정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에 포기하려했던 꿈나무를 다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 제30회 제주전국 학생음악콩쿠르에서 전체 차상을 받게 되었고, 제5회 목담최승희전국국악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꿈은 성큼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거름이 되어준 건 바로 '제주인재육성장학금'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주를 그리고 나아가 한국을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앞으로도 성실함을 무기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는 시점에서 용기를 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감사드립니다.



#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양승훈

인생학교 8기 교육생

나는 33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 후 우연한 기회에 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즉시 그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하여 좋은 느낌으로 본 과정에 노크를 하였고, 입과 한지 벌써 두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름을 실감케 합니다. 참고로 학습이 재미있어서 나는 하루도 빠지지않고 학습에 참여 하는 등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열 체크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본 과정 학습후기를 두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첫째, 느낀점

입과하기 전에는 "참여 수강생들이 거의 나와 같이 조직에서 직장생활을 3~40년간 근무, 퇴직한 남성들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나는 짐작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결과는 남성보다 우월하게 여성분들이 많았다는 것, 또한 학습 열의도 대단함에 놀랐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대부분은 지금껏 가족을 위해 무조건적 헌신을 하며 개인적으로 평안한 가족을 만든 위대한 분들 이었고, "늦게라도 자신을 개발시키기 위해 이 과정 학습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 차렸습니다. 같이 학습하는 여성분들에게 큰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 둘째, 본과정 이수후 계획

나이들~, 하순애, 철학박사를 첫 시간으로해서 총 18차시 54시간으로 구성된 학습안을 보면서 집행부에서는 본 과정을 위해 강사추천등 고생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060세대에게는 대략 삼십오만 시간정도 남은 인생을 즐길 시간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체교육으로 얻은 지식을 통해 남은 인생을 활기차고 여유로우며 슬기롭게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본 학습과정이 끝나더라도 교재를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항상 곁에 두고 교육시 메모한 내용들을 되새기며 학습하여 사회공헌과 재능을 기부하면서 보람있게 생활코자 합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5060세대 인생후반전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과 학습환경을 제공한 제주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분들과 제주특별자치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심화과정을 마치며

허은주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1기 교육생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초등 입학식도 못했던 1학년 아이와 1년이나마 학교에 다녀왔던 2학년 아이에게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와중에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양성과정>은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반가운 소식이었다. 학습에 대한 내 소신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학원에서 채운다’ 였지만, 그 당시 상황은 아이 학습에 대해 불안과 갈등의 연속이었고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을 통해 내 아이를 잘 가르쳐보겠다는 욕심이 매우 컸었다.

줌(Zoom)으로 시작된 작년 양성과정의 첫 수업에서 강사님이 ‘이 수업을 듣게 된 목적’을 묻는 첫 질문에서 나는 그냥 내 아이를 위해서라고 편하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양성과정-심화과정을 거치면서 첫 수업의 첫 질문에서 강사님이 얘기하셨던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봐야 내 아이도 잘 보인다’라는 답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나 자신을 깨닫게 하였고 너무나도 신선한 이야기였다.

작년 자기주도학습 이론 위주였던 양성과정을 끝내고 바로 아이에게 적용해 본 결과는 대 실패... 선부른 시도는 오히려 아이와의 관계만 나빠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 올해 심화과정을 통해 현재 학교 교육과정, 학습자를 이해하는

의사소통 기법, 다양한 코칭 사례 등을 들으면서 학습자인 내 아이에 대한 이해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심화과정까지 마친 지금, 실력도 경험도 아주 부족한 내가 지도사로서 활동하겠다 용기를 내는 것은 <자기 주도학습지도사 과정>을 입문할 때와 같은 욕심이지만, 이 욕심과 도전 정신이 내 아이 그리고 또래 아이들에게 부족한 그 무엇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그리고 이런 길이 있다고 알려주고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센터와 강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내 아이들과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이 함께 할 <자기 주도학습>이 당장 학습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배우지만 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를 조금 더 뚜렷이 하고 계획을 세워 잘 실천하고 긍정적인 자기 성찰까지 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내가 되기를 희망한다.



# 보석과 같은 뜻깊은 시간!

김미숙

학부모독서회 회원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제주꿈바당어린이 도서관 '학부모독서회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을 알았다. 문태준 시인과 함께 하는 책 읽기와 창작교실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알고 “와~!! 이거다”하는 마음에 희열이 느껴졌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외부 활동도 할 수 없고 속내를 나눌 친구를 만나 수도도 마음 놓고 떨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꿈바당 학부모독서회'는 나에게 희망이었다.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

첫 시간의 만남은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꿈바당 그 곳에 강사님이 계시고 배우는 수강생이 있었다. 작은 토론 수업 같은 분위기도 맘에 들었다. 수업은 강사님이 준비하신 강의자료로 1교시가 진행되고, 2교시는 시집을 읽고 그 후기 공유와, 과제로 써온 글에 대한 합평으로 진행되었다. 자신의 감정과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글로써 발표하는 수강생들은 수줍어 하기도 하고 쑥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작품에 대한 토론의 열기는 회가 거듭될수록 더해가는 듯하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이 시간은 특별한 이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좋은 경험인 것 같다. 나 자신 아직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병아리가 눈을 뜨듯이 조금은 보일 것 같다. 바라기는 이런 강좌가 계속 열리어서 이 꿈바당 프로그램을 통해 보석과 같은 열매를 맺고 싶다.

끝으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 '꿈바당 책둘레길'이란 프로그램과 함께 소중한 학부모 독서회 프로그램을 개설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제주신화학교를 참여하며

윤석찬

제주신화학교 교육생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서 천지왕, 삼승할망, 자청비, 저승차사 강림 등의 이야기들을 참 재미있게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래 전승되어 내려온 제주신화의 일부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들었지만 이 제주신화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하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제주평생학습장학진흥원과 제주학연구센터가 함께 제주신화학교를 개설한다는 소식을 들은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신화 중에서 먼저 일반신 12본풀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신화학교 수업에선 이 12본풀이를 강정식, 강소전 박사님 등이 체계적으로 강의를 해주어 제주신화를 이해하는 나름대로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반신 12본풀이에 더하여 제주의 당신, 조상신 본풀이 수업도 조속히 개설되어, 더 쉽고 재미있는 강의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운영한 유아들에게 제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가 양성과정'에 참여해서 이 과정을 이수했었습니다. 공동체문화활동가 활동의 일환으로 신화학교 수업에서 배운 소별왕, 대별왕, 가문장아기, 자청비, 녹디생인, 강림 등의 이야기들을 유아들에게 알맞게 정리해서 들려주고 싶습니다.





#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학 이 불 사 즉 망 사 이 불 학 즉 태

배웠으나 사색하지 아니하면 들어맞는게 하나도 없고,  
사색하되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롭다.

공자(논어의 위정편)

#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닌 내 주변을 돌아보는 일

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취약계층 의료봉사와 지역인재 육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60여 년간 기부, 봉사활동을 해 온 의사가 있다. 바로 이유근 아라요양병원장이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KBS 시청자 위원, 제주투데이 칼럼을 연재하면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그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게 된 것 같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뷰 내내 미소를 띠던 그에게서 평생 타인을 배려해 온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이유근 병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자원봉사와 기부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사가 된 계기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열악한 의료 현실 때문에 많은 가족을 떠나보내셨다. 그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의사가 돼 많은 사람을 도와주길 바라셨고, 나는 의사라는 꿈을 키워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 재학 중에 정신과 교수님 강의를 1년 동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의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면서 자원봉사와 기부를 결심하게 된 것 같다.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사회에 빚진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며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요양병원을 설립 계기도  
특별했는데요.  
지역에 대한  
봉사 일환 이신가요?

제주지역의 요양병원 시설이 너무 열악해 보였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좋은 요양병원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친구들 모두 편안한 노후를 즐길 나이인데 왜 새로운 걸 시작하느냐고 말했다.

무리한 계획일까 고민하던 중 한 지인이 칼럼을 보내왔다. 호서대학교 설립자 이신 강석규 씨가 95세의 나이에 쓴 칼럼이었다. 호서대 총장을 퇴임하고 노년의 나이임에도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내용이였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데 내 나이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로서의 내 재능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아라요양병원의 설립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아라 요양병원은 깨달음을 통한 새로운 도전이다 보니 애정이 특별하다. 이제는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며 아라 요양병원장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HRA 교육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의사가 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지만 ‘교사’가 더 바람직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다. 의사는 치료받는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생명만을 구하지만, 교사는 정신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올바른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개인의 올바른 생각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준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교육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HRA(Human Resources Academy)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HRA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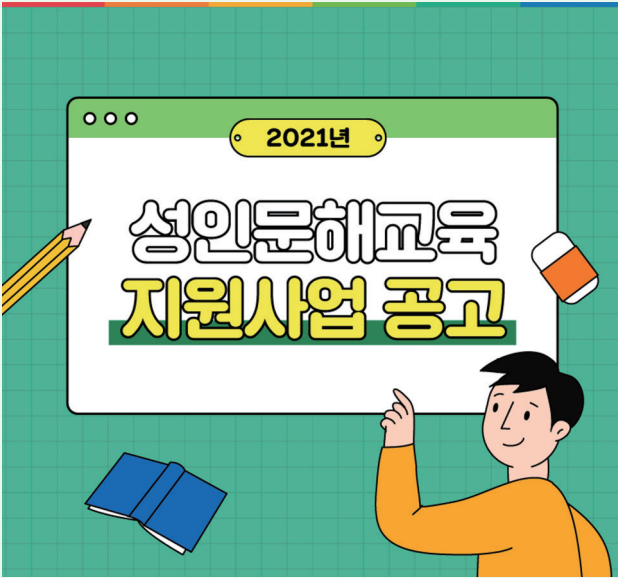
제주도는 21세기 들어 경제적 패러다임과 지정학적 위상이 급격히 변화했다.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새로운 적응 방법이 필요해졌다. 이에 발 맞춰가는 것이 글로벌 감각을 지닌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라고 생각돼 HRA를 만들게 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HRA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인다. 1회 수료생 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재학 중이던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했던 친구였다. 그 친구는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서 한국어 통역사로 일하게 됐다.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노력하고 기회를 만들어나간다면 현세대 청년들이 뭐든 못해내겠는가 생각했다.

끝으로 제주 청년,  
제주도민들 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당장 발생할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폭넓게 멀리 봐야 한다. 즉,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최근 제주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슈 중 제2공항 문제를 살펴봐도 찬반 양측에서 모두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제주도민의 행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집합이다. 서로의 입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제주사회가 좀 더 배려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역량인 ‘문해능력’의 육성을 통해 한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해 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저학력 학습자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초·중학 학력을 인정받는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문해교육 인식 확산 및 참여 촉진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사업’,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조사·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해교육기관의 체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앞서 언급된 세부사업들을 운영·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시도 및 시도교육청)는 시도 단위 문해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해교육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행한다. 2020년 기준으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은 167개 기초자치단체, 421개 기관에서 1,757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22,610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여건과 교육 수준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평생교육법 제16조와 같은 법의 시행령 제7조2의 근거하여 저소득층 성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격차 등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자기 계발과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포용적 사회 정책으로서 의의가 크다.

평생교육바우처의 이용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며,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용자는 평생 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사용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자는 농협과 BC카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 및 재료를 결제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평생교육바우처는 1인당 35만 원이 지원되어 전국에서 총 10,374명이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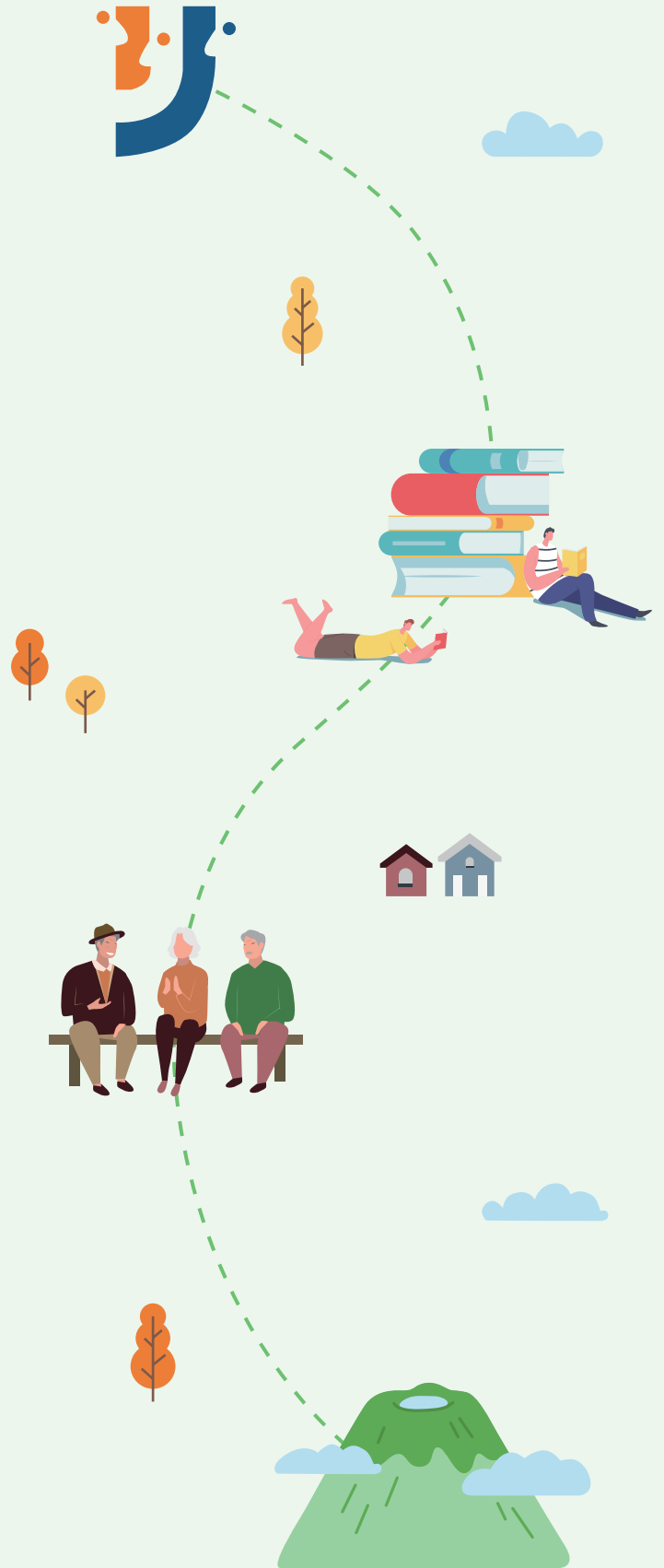


## 학교협동조합 지원사업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를 기반으로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학교협동조합 지원사업은 교육과 체험을 통한 참여 학습으로 교육자치 및 학생 중심 교육복지를 실현을 목적으로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교협동조합 협력체계 구축·운영, 운영 주체의 전문성 강화,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사업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지원센터가 앞서 언급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이 현장 지원 및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시도교육청 소속 지역지원센터가 조합 인가 및 관리·감독,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 컨설팅, 매뉴얼 보급등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146개의 학교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달성 및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전국 최초의 특수목적형 공익법인 이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 지정기부금 안내

### | 참여방법 (일반지정·용도지정 기부)



#### 일반지정 기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대상, 금액, 집행 등을 사용권한 일임

#### 용도지정 기부

기부의도, 목적, 장학금(지정명칭 사용, 지원방법) 등 사전계획에 따른 기부

### | 세제 혜택 : (기부자)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 기부자 예우

- 기부자 이름의 장학사업 운영(제안시)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명예의 전당 명패 등재
-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 기탁식 및 수여식 개최시 초청, 감사패 전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소식 안내 등



## | 2021년 주요 행사

2/10	제주문해교육센터 지정
2/28	진흥원 개원기념일
3/4	제주학연구센터와 업무협약(MOU)체결
3/24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체결
4/7	제주 인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4/19	2021년 국가산업대상 - 인재육성 부문 수상
6/15	제주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MOU)체결
6/25~26	제주포럼 참석(청년 세션, 평생교육 세션 운영)

## | 예정 행사

10월	2021년 제주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개최
	제3회 탐나는 SW경진대회
11월	제주평생학습박람회
	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사업 성과발표회
	제주인재육성 장학생 어울림 한마당
12월	제주평생학습한마당
	SK텔레콤과 함께하는 시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양성 시제품 평가회



내 손 안의 배움터

# '제주평생교육다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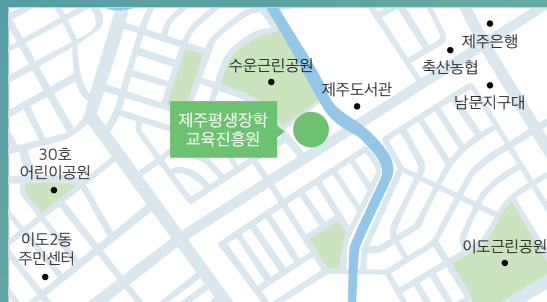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제주지역의 평생교육정보를 다모아(damoa) 전해드리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damoa.jeju.kr](http://damoa.jeju.kr)



## 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 2, 4층(이도2동)  
TEL : 064)744-9852 | FAX : 064)726-9961  
WEB : <http://jiles.or.kr>



###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제주도 제주시 연으로 140(연동)  
TEL : 064)748-8101

###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제주도 제주시 연으로 140(연동)  
TEL : 064)745-7101

###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 2층(이도2동)  
TEL : 064)755-9511

### 서귀포시 중국어체험학습관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로 104 종합복지센터, 2,3층(동홍동)  
TEL : 064)733-1080